

## 사역의 현지이양- 해야 하는겁니까?

- 백운영

최근 선교사들에게 가장 중요한 단어로 자리잡은 것은 사역의 현지이양입니다. 그래서 선교사는 사역지에 도착하면서 바로 미래의 계획 속에 출구전략도 세우라고 합니다. 그리고 사역이양에 있어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단어가 바로 현지지도력 개발입니다. 선교사역은 내가 얼마나 많은 영향력을 발휘하고 내가 모금한 재정이 얼마나 많이 현지에 투입되느냐로 성패가 좌우되지 않습니다. 선교사가 같이 기도하며 같이 시간 보내면서 키워낸 현지 제자가 선교사보다 일을 더 잘 할 수 있도록 힘을 주고, 세워진 사역들을 그들에게 물려주고 떠나야 할 때를 아는 것이 가장 현명합니다. 물론, 너무 빨리 떠나면 그 사역은 무너지고 말 것이며 너무 오래 머물다가는 내 영향력이 너무 커져서 현지인들이 자립할 수 있는 가능성을 빼앗게 됩니다.

그래서 사역지에 세워진 교회이든, 학교이든, 훈련사역이든 그 사역을 이끌고 나갈 수 있는 현지지도력 개발은 선교사의 사역을 평가하는 바로미터가 되기에 사람 키우는 일이 그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만일, 현지에 있는 학교나 교회의 재산권이 현지의 믿을만한 사람들에게 이양되어 법인체가 되고 그래서 재정적인 독립을 하게 된다면 그 사역은 미래에도 건강하게 지속될 가능성이 큽니다. 한국의 숭실대학이나 연세대학은 외국인 선교사가 처음 시작했다가 한국인 지도자들이 이어받으면서 훨씬 크게 확장된 아주 좋은 본보기입니다.

그런데 선교사들 중에는 현지 사역을 하면서 취득하게 된 건물이나 부동산 등의 자산을 개인 재산으로 가지고 있거나 이것을 담보로 거래를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재산을 미국이나 한국의 어떤 교회나 단체에 넘겨주고는 그 교회가 물주가 되어 어려울 때 자신에게 도움주기를 기대하기도 합니다. 만일 그렇게 되면 현지에 세워진 학교나 교회는 더 이상 성장하지 못합니다. 타국에 재정이 뽕뽕한 물주가 있다는 생각에 현지인들은 현금도 하지 않고 재정적으로 어떤 희생도 하지 않고 제자리 걸음만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선교사가 떠나고 나면 그 사역은 폐허가 되는 것을 선교 역사를 통해서 많이 봅니다. 선교사 자신도 사역을 확장하기 원할 때마다 해외에 있는 물주에게 연락하고 기대는 마음은 영적인 활력을 빼앗아 버립니다. 제가 섬기는 교회는 그래서 사람 키우는 사역을 하기로 방향을 정하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교사는 한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며 같은 마음과 같은 방향을 바라보는 지체 중에서 세워질 때 더 힘을 얻게 됩니다. 저희 교회도 그래서 몇 년 전부터 파송 선교사에 대한 규정을 바꾸어 교회에서 한 가족으로 함께 신앙생활을 하던 사람만을 선교사로 파송하도록 했습니다. 파송 선교사란 성경의 안디옥 교회의 바울과 바나바처럼 교회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모교회에서 파송된 선교사를 뜻합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는 파송한 선교사를 위해 함께 금식하고 기도하고 사역하는 동안 함께 물질로 동참했습니다. 이렇게 함께 할 때 사역에 따르는 아픔은 반감되고 기쁨은 배가 됩니다. 우리도 한 공동체 안에서 함께 신앙 생활하던 지체들이 부름받아 선교지로 떠나는 모습을 보기 원합니다. 그리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현지에서 사람을 키워내는 사역이 계속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